통도사, 단오 맞아 재난예방 기원

6월 7일 설법전서 용왕재… 소금단지 교체도

영축총림 통도사가 단오절을 맞아 재난을 막고 각 신도의 가정에 안정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했다.

통도사(주지 현문)는 6월 7일 설법전에서 단오절 용왕재를 봉행했다. 통도사는 단오절이면 각 전각 기둥 모서리에 소금단지를 교체하고 화재가 없기를 기원한다. 올해는 우천으로 설법전에서 진행됐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주지 현문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500여 명은 단오재에 참가해 나라와 각 가정에 화마와 사고가 없기를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이 대중에게 소금을 전달하고 화마가 없기를 기원하고 있다.

용왕재를 마치고 주지 현문 스님의 인사말이 이어졌으며 불자들에게 소금 봉투를 나누는 일도 진행됐다.

주지 현문 스님은 "방장스님께서 '번개가 아무리 친다 해도 바다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고 하셨다"며 "이처럼 화마에 영향 받지 않는 평안한 한 해를 기원하며, 바닷물을 떠오고 소금단지를 교체한다. 한 해 동안 안녕을 기원하는 통도사 용왕재에 많은 불자들이 참석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통도사 단오절 소금봉투에는 대광명전 평방에 적혀있는 특별한 문구가 새겨져 있다. 화마진언으로 내용은 "우리 집에 한 분 손님이 계시니, 바로 바다 속에 사는 사람이다. 입에는 하늘에 넘치는 물을 머금어, 불의 정신을 소멸할 수 있네"이다.

통도사 대광명전은 '대광명전 삼성공필후 현판' 에 따르면 화재로 전소돼 1758년 9월에 다시 지어졌으며, 내부 좌우 평방에 화마진언이 적혀있고 이후 화재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전해진다.

통도사=하성미 기자

자비나눔으로 밝힌 부산 동래구

동래구불교聯, 자비의 쌀 1000kg 및 수납형 행거 전달

부산 동래구불교연합회 스님들이 동래구청을 방문해 자비의 쌀과 수납형 행거를 전달했다. 전달품은 관내 저소득 가정에 기부될 예정이다.

동래구불교연합회(회장 효문)는 6월 11일 동래구청장실을 방문하고 이웃돕기 물품 '자비의 쌀 1000kg 및 수납형 행거 230개' 를 기탁했다. 전달식에는 동래구불교연합회장 효문 스님, 부회장 해운 스님, 사무총장 용하 스님 및 회원 스님들과 이대우 동래구 부구청장, 조광심 불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자비의 쌀은 사무총장 용하 스님이, 행거는 보이차 전문점 진향당에서 동래구불교연합회에 전달했으며, 회원 스님들의 결정으로 동래구에 기탁했다.

앞으로 동래구불교연합회는 회장 효문 스님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효심밥상' 을 중심으로 정기적 나눔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효심밥상은 효심사에서 운영하는 급식소이며 지난 6월 4일 효심사는 범어사 포교당으로 등록됐다. 동래구불교연합회는 현재 50여개의 회원사찰이 등록되어 있으며 1996년에 창립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일붕 서경보 스님 23주기 추모재

사단법인 대한불교선교종(총무원장 삼주)은 6월 11일 대전 총무원청사에서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존자 탄신 105주년 다례제 및 원적 23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종정 법운 스님과 최혜숙 이사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무원장 삼주 스님은 "일붕존자 유지를 잘 받들어 세계평화를 하루 빨리 이루겠다. 함께 불국토를 이뤄 나가자"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태권도로 불법홍포, 心身 다진다"

세계불교태권도협회, 6월 9일 은해사서 창립

은해사=손문철 대구지사장

불자 태권도인들이 스포츠 포교의 불모지였던 태권도를 바탕으로 불법홍포에 나설 기반을 마련했다.

세계불교태권도협회(총재 김욱한)는 6월 9일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육화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협회는 불교를 기반으로 태권도 정신을 선양하고, 부처님 근본 가르침인 지혜와 자비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다. 태권도 9단인 김욱한 ㈜진영정밀 대표를 중심으로 현직 태권도장 관장과 코치, 심판,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1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다.

특히 협회는 호국불교의 산실 은해사와 긴밀한 인연을 맺고, 태권도분야서 불교계의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창립법회가 열린 이날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과 불굴사 주지 덕관 스님, 선본사 주지 법성 스님 등 스님들도 자리에 함께해 세계불교태권도협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아울러 최기문 영천시장, 주호영 정각회 명예회장 등도 축하의 뜻을 전했다.

김욱한 총재는 "세계불교태권도협회는 예와 덕을 추구하는 태권도의 무예정신에 불교수행을 접목한 단체다. 세계적인 무예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한다"면서 "불교문화 확산과 발전에도 협회가 기여할 수 있는 실천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삼국통일을 이룬 화랑도정신이 깃든 은해사에서 세계불교태권도협회가 창립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세계적으로 자비정신과 지혜정신을 갖춘 단체가 되길 바란다. 은해사는 앞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장으로 항상 문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관장 · 코치 · 심판 등 100여명
불교문화 확산 위해 뜻 모아
오는 가을 불자태권도 대회
어린이 · 청소년들 참여 기대

은해사가 위치한 영천은 국내 최초의 태권도 전용체육관이 설립돼 있으며, 지자체가 태권도 실업팀을 운영하는 지역이다. 이에 세계불교태권도협회는 은해사를 재적사찰로 정하고, 주지 돈관 스님을 명예총재로 추대했다. 아울러 오는 가을 천년고도 경주에서 어린이 · 청소년 등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제1회 불자태권도 대회' 를 개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세계불교태권도협회는 우선 8월 중 은해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회원화합과 불자로서의 기본소양 다지기에 나선다. 이후 부산경남 · 대구경북 지부를 결성하는 한편, 전국 시도별 지자체에 지부를 설치하기 위한 방안 모색도 계획하고 있다.


세계불교태권도협회 회원과 은해사 스님들, 지역 태권도장 어린이 · 청소년들이 협회 창립을 기념하는 모습.

세계불교태권도협회가 정기적으로 불자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고, 불자선수 발굴에 힘을 쏟으면 앞으로 스포츠분야의 인재양성에 불교계가 큰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문섭 협회 고문은 "아직까지는 조직이 대구경북에 한정돼 있지만 머지않아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부처님오신날이 5월 불교계의 가장 큰 행사인 것처럼 불자태권도 대회가 또 하나의 문화 축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북 종교 · 시민사회 새만금 해수유통 촉구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 각계 100인 선언문 발표

전북지역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100명이 6월 4일 전북도청 앞에서 새만금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의 전면적인 해수유통을 요구하고 나섰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전북녹색연합 상임대표 회일 스님(참좋은 우리절 주지),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마이산 탑사 주지), 전주고백교회 한상렬 목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대표 문규현 신부 등 종교인과 시민사회단체 100명으로 구성된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 은 '새만금 해수유통 촉구 전북 종교계 · 시민사회 대표 100인 선언문' 을 발표하고 새만금의 전면적인 해수유통을 촉구했다.



전북도청 앞에서 종교 · 시민사회계 대표 100인이 새만금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종교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선언문에서 "새만금사업은 거짓과 무지, 탐욕에서 비롯된 잘못된 사업이었다"며 "잘못된 사업을 끝내 막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새만금사업에 대한 깊은 성찰과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새만금과 전북을 살리는 길은 2020년 해수유통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년 동안 4조원을 쏟아부은 수질개선 사업의 결과가 새만금호 수질 6급수"라며 "새만금에 바닷물을 상시적으로 유통시키고 '새만금 민 · 관 협의회' 를 만들어 전북도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북행동은 "올해부터 '스마트수변도시' 로 내부개발이 본격화되지만 죽음의 호수 위에 스마트한 국제도시를 만드는 일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반문하고 "2020년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만금 사업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새만금 해수유통을 이루지 못한다면 후대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 에 동참하고 있는 불교계 인사들은 대공 스님(김제 구룡사 주지), 덕산 스님(금선암 주지), 도연 스님(상주사 주지), 도홍 스님(성덕사 주지), 무여 스님(귀신사 주지), 법만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진 스님(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익산 태봉사), 승묵 스님(남원 실상사 주지), 우경 스님(천고사), 종범 스님(고창 미소사 주지), 진성 스님(태고종 전북종무원장), 행담 스님(군산 염불사 주지), 현법 스님(김제 영천사 주지), 회일 스님(전북녹색연합 상임대표) 등 다수의 스님들이 이름을 올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 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 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 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승 정 원 장 월해 총 무 원 장 법천당 청운
감 찰 원 장 성호 종 회 의 장 법륜 호 법 원 장 해월
포 교 원 장 덕해 교 육 원 장 영호 규 정 원 장 혜성
감 찰 부 장 경오 호 법 부 장 문경 포 교 부 장 장문
규 정 부 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입종을 환영합니다 전남 장흥 계 암 스님 | 전남 순천 연 오 스님

본 종단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한마음조계종에 대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제방의 대덕 큰스님이하 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종단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 도 모 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808호 011-870-0021